中 산시성서 발견된 천년의 석굴사원

산시성 타이위안 '불혜사동굴'
조각기법 분석, 수 · 당 조성 추정
보존 위한 최신 기술 활용 추진
"기술 결합한 보존 노력 필요"

김민재 객원기자

중국 북부 산시성(山西省)에서 1000년 이상 역사를 지닌 새로운 석굴사원이 발견돼 화제다.

지난 2월 6일 중국 언론 '환구시보'는 최근 산시성 타이위안 지역에서 발견된 '불혜사동굴(佛慧寺洞窟)'에 대한 소식을 보도했다.

불혜사동굴은 길이 8.2m, 높이 4.26m, 깊이 1.63m의 대형석굴로 불상 상호와 조각 기법을 분석한 결과, 석굴 조성 연대가 1000여 년 전 중국 수나라(581~618)와 당나라(618~907)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추정된다.

페이징롱 중국 문화유산보존국 고고학자는 "석굴사원 중앙의 대불 세구와 양측 벽면 부조의 상호, 조각 기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수나라 말기에서 당나라 초기에 조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상호와 옷 주름의 표현 방식이 해당 시기 불상과 유사한 점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10대 제자상, 보살상, 비천상 등이 정교하게 잘 보존돼 있다"고 밝혔다.



불혜사동굴의 마애불. 사진출처=CCTV뉴스

산시성은 중국에서 가장 많은 석굴사원과 절벽 부조가 있는 지역으로 불교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중 하나다. 왕웨이 고고학자는 "수·당나라 시기 불교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석조 예술도 함께 발전했는데, 불혜사동굴은 그 시대의 불교문화와 예술적 성취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중요 유산"이라며 "이 시기 불교 예술은 단순한 신앙의 공간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혜사동굴은 동굴의 동쪽이 서쪽보다 높아 동쪽 바닥에 1m 이상의 균열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석굴사원의 보존을 위협하는 요소는 산재해 있다.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암석학적 요인을 포함해 지형, 동굴 밀도, 구조 표면의 특성이 동굴의 안정성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산성비, 미세먼지, 관광, 인근의 건설 진동 등 환경적 요인이 석굴사원 훼손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었다.

왕웨이 고고학자는 "같은 지역에서 발견됐던 '천룡산석굴(天龍山石屈)'은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로 불법 유출된 불상을 디지털 형태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3D 스캐닝 및 디지털 복원 기술을 활용해 불혜사동굴의 예술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고 석굴사원 보존을 위한 최신 기술 활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혜사동굴 같은 고대 문화유산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하기 위해 디지털 복원 기술과 전통 고고학 기술을 결합한 연구와 보존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교 윤리, 간호 교육 중심으로 부상

홍콩 메트로폴리탄 대학서
인간 중심 돌봄 모델 구축

기술 발전이 의료 산업을 혁신하는 시대, '간호'의 미래는 환자의 권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게 됐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 교육에 생명존중의 불교 윤리를 도입한 대학이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월 9일 홍콩의 언론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홍콩 메트로폴리탄대의 불교 윤리와 간호 실무 융합 교육 소식을 보도했다.

홍콩 메트로폴리탄대 간호보건과학부는 간호 윤리 및 법적 문제, 전문 간호 실무 과정에 불교 윤리를 통합하는 혁신을 보여줬다. 융합 교육과정에서는 간호대 학생과 환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간 중심 돌봄 모델을 구축한다.


간호보건과학부 학생들. 사진출처=홍콩 메트로폴리탄대 간호보건과학부

오늘날 간호사들은 더욱 복잡해지는 환자와 상호작용 속에서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윤리적으로 정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환자의 가치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임상 현장에서 효과적인 역량을 키울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불교 윤리는 현대 의료윤리 4대 원칙(무해성, 선행, 자율성 존중, 정의)과 유사점을 갖고 의료 종사자에게 도덕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자비(compassion), 마음챙김(mindfulness), 연기(interconnectedness)를 강조하는 불교 윤리는 간호에 필요한 기술을 배양하는 틀을 제공한다. 또한 불교 윤리가 가진 핵심 원칙인 불살생(ahimsa), 자애(metta), 동심지랑(mudita) 등의 개념은 간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한다.

간호보건과학부 관계자는 "다민족 국가에서 간호사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이해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불교적 관점으로 다양한 문화 및 신념을 이해하고 존중하면, 간호사들은 환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보다 효과적인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불교 윤리와 간호 실무의 융합은 '마음챙김 실천'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사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집중하는 자세를 갖추면 환자 치료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간호사 본인의 정신적 안녕의 유지도 가능하다"며 "명상이나 성찰적 실천(reflective practice)과 같은 기법을 간호 교육에 통합하면 미래 간호사들은 정서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임상 환경에서 자비로운 간호를 제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메트로폴리탄대 간호보건과학부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간호 기술에 숙련됨과 더불어 윤리적이고 자비로운 간호사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성평등' 이끈 불자 트랜스젠더 여성

나찰레 부니야피솜판 씨
불교 · 성소수자 연대 이끌어
"차이점 포용, 변화의 희망"


나찰레 부니야피솜판 씨.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2024년 6월, 태국 상원은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혼평등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9월 해당 법안은 마하 와지랄롱콘 태국 국왕의 승인을 받아 공식 법률로 제정돼 202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대만,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결혼 평등을 실현한 태국의 변화는 사회운동가들의 오랜 노력으로 일군 성과다. 특히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EB) 회원인 트랜스젠더 여성 나찰레 부니야피솜판(예명, Hua) 불교 활동가가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지난 2월 6일(현지시간) 불교 온라인 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과 인터뷰에서 "불교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사회 변화의 희망을 갖는 데는 이러한 불교 교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Q. 불교와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

A. 저는 태국 불자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절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13살 때는 일주일 동안 출가해 생활한 경험이 있죠. 학교에서도 불교 수업을 듣는 등 제 인생에서 불교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Q. 성 정체성은 언제 깨달았나요?

A. 어릴 때부터 보통의 남자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당시엔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없어서 '카토이'라고 불리곤 했죠. 대학에서 '트랜스젠더'라는 단어를 알게 된 후 제 정체성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더욱 넓은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Q. 불교 교리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까요?

A. 불교는 수용을 중시하는 종교이기에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집안이었기에 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불교 교리는 타인을 이해하는 자세를 길러줘서 제가 사회 변화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Q. INEB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죠?

A. INEB는 자비로운 사회, 환경 보존, 세계 평화를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성소수자들의 권리와 평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지역 사회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의 승가' 프로젝트에서 종교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죠.

Q. '종교 간 프라이드: 성평등과 사회 정의' 행사를 주도했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A. 해당 행사는 방콕 프라이드 페스티벌, 여러 성소수자 활동 단체와 협력해 연 첫 행사였습니다. 성평등과 사회 정의를 위해 종교 간 협력을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비전과 가치를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 됐죠. 이런 경험을 통해 불교와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협력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Q. '결혼평등법'이 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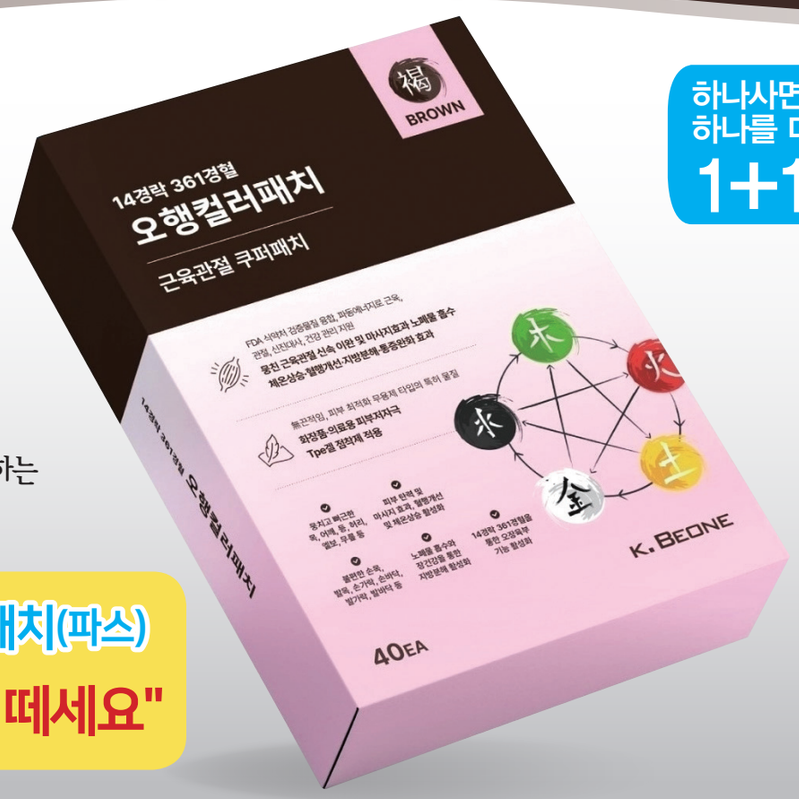
A. '결혼평등법' 제정은 단지 법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죠. 저는 이 법이 성소수자들에 대한 태국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박정현 객원기자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